
교육공동체 나다 주말강좌
2019년 10월

휴먼러니저즘

참가안내

[진로] 꿈꾸지 않을 자유

★ 노력하면 된다고 말하는 흔한 진로교육에 대한 카운터펀치



교육공동체 나다 주말강좌
“휴머니즘”에 참가하시는 방법

※ 후원회원 가입은 나다 홈페이지 <http://nada.jinbo.net> “후원하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1. 참가신청

참가신청 연락을 해 주세요

〈새로 참가하는 경우〉

전화 또는 나다 홈페이지 “주말강좌-휴머니즘” 게시판에서 신청 글 작성.

▶ 알려주실 것 : ①참가자이름 ②휴대전화 ③신청강좌 ④회원가입여부 ⑤입금자명

〈앞 과정과 연결해 계속 참가하는 경우〉

이전 과정에 이어 계속 참가하시는 분들께 새 과정 참가 여부를 먼저 여쭙고 신규 참가 접수를 시작합니다.

2. 후원회원 가입 선택

후원회원은 주말강좌(휴머니즘)와 방학특강 강좌후원금이 20% 할인됩니다.

▶ 후원회원 : 월 회비 1만 원 이상을 납부. 홈페이지 상단 “후원하기”에서 양식 작성.
(※ 홈페이지에 글을 쓰기 위한 로그인 회원과는 별개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3. 강좌후원금 납부

[2019년 10월 휴머니즘] 강좌후원금

고등부 진로 10만원(5강)

▶ 회원은 80%만 납부

▶ 납부 계좌 : 국민은행 543037-01-005880 교육공동체나다

4. 그 밖에

★ 참고하실 사항

1. 강의는 주 1회, 2시간입니다.
2. 11월 마지막 주(24일)까지 강의 예정입니다.

★ 강좌가 열리는 곳

교육공동체 나다(마포구청역)

서울시 마포구 망원로 7길 44(망원2동 479-28) 3층

진로 고등

꿈꾸지 않을 자유(5강)

★ 노력하면 된다고 말하는 흔한 진로교육에 대한 카운터펀치

참가자	17~19세 고등부 청소년
개강	<일요강좌> 10월 27일~11월 24일 오후 3시 30분
오리엔테이션	강좌 첫 참가자에 한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첫날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와주세요!

“넌 꿈이 뭐니?”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기를 지내온 이들 중에 이 질문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청소년으로 사는 시간을 꿈을 찾는다든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한다든지 하는 시간으로 봅니다. 하지만 꿈을 가지는 말이 각자가 가진 가능성을 응원하는 말이 아니라 일종의 폭력이 될 수도 있는 시대라는 비판이 이제 조금씩 흘러나옵니다. 실제로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꿈을 향해 발돋움하기 보다는 현실의 벽에 직면하고 더 이상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을 패기가 없다거나 어리석다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시간은 잔인하리만큼 정확하게 짜각짜각 일정한 속도로 미래를 앞당겨 옵니다. 다가오는 시간을 불안과 우울로 맞이하지 않고, 인간이면 누구나 바랄 즐거움의 시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강제되는 꿈과 직업 소개에 머무는 진로교육을 넘어, 청소년 당사자들과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 합니다.

.....

1강_ 꿈은 잠잘 때만 꾀다 : '꿈'이란 이름의 욕망

어른들에게 꿈을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어중간한 꿈을 들이댔다가는 잔소리 듣기 일쑤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어른들은 꼭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꿈을 크게 가져라.” 큰 꿈은 어떤 꿈일까요? 대통령? 세계 정복? 어른들이 말하는 큰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2강_ 옥수수 마을 이야기 : 신자유주의와 꿈

‘세계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와이 같은 환상적인 이국의 섬으로 휴가를 떠날 수 있는 것도, 두리안처럼 이 땅에 나지 않는 신기한 과일을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것도, 모두 세계화 덕분입니다. 그 뿐인가요? 고되지만 별이는 적은 일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떠넘길 수 있는 것도, 외로운 노총각들이 외국 여성을 사들여 국제결혼을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세계화 덕분입니다. 쾌락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떠넘기는 세계화의 시대, 우리의 꿈도 고통을 피해 쾌락을 쫓아 세계로 뿔어나갑니다.

3강_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 : 노동, 너무나 당연한 삶의 몫

밥을 차리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밥을 짓지 않으면 밥을 차릴 수 없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밥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농사를 짓지 않고도 밥을 짓지 않고도 밥을 차리지 않고도 밥을 먹습니다. 그 누군가는 무언가 다른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해도 세상은 가장 기본적인 노동과 그 노동을 기꺼이 감수하고 사는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당신은 당신이 살아갈 몫을 다하고 살고 있는 건가요?

4강_ '장래 희망'이라는 희망 고문 : 우리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까?

우리는 흔히 꿈을 말하라고 하면 직업을 떠올립니다.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그에 걸맞은 직업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들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즐겁게 일을 하며 살아가는 어른들을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옛날엔 그랬지만 앞으로는 달라질까요? 적성이고 뭐고 아무 직업이라도 얻고 싶다는 푸념들이 넘쳐나는 걸 보면 그다지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울해질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울한 이유는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다는 기만 때문입니다.

5강_ 거위의 꿈 : 꿈을 다시 쓰다

꿈을 찾는 것도 꿈을 이루는 것도 버겁게 느껴진다고 우리의 미래를 무자비한 시간의 흐름에 내맡길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꿈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 자유를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꿈’이라는 예쁜 포장지 안에 싸여진 것의 정체에 결

국 소수만이 가질 수 있는 힘에 대한 욕망이라면 그 욕망에 대한 배반이 새로운 꿈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당신은 비어있는 꿈의 의미에 무엇을 채워 넣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채워 넣어야 꿈이 당신의 인생에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교육공동체 나다 2019년 10월 휴머니즘 소개 마침■